

## 이은무 선교사 선교칼럼(8)

### 대상자에게 맞춘 선교

세월이 지나 갈 수록 사회는 바뀌고 그에 따르는 문화도 바뀌어 나간다. 정치체제도 바뀌고 경제 생활도 바뀌어 지고 있다. 우리의 모델로 생각하는 성경의 바울의 시대나 19 세기 말의 한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의 시대나 필자가 1976 년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을 당시의 상황과 환경은 지금의 선교지는 많이 달라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이 보여주었고, 성공한 선교의 역사가 말해준 것은 현지인들을 세우고 떠나는 원리는 세월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시대는 늘 변천해 가고 있기 마련이지만 선교사들의 눈은 말씀과 상황, 즉, 성경과 신문을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전하는 말씀에 충실해야 할 뿐더러 내가 준비한 말씀을 들을 청중에 대한 변화, 특별히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context)는 늘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중은 변화에 민감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가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말씀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상황화 전략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조동진 박사는 “침략과 정복과 수탈의 역사를 로마 기독교제국으로부터 이어받은 서구 기독교 제국중의 식민주의 도구로 몰락하였던 근대 기독교 선교는 정복자의 영광과 그들을 위한 황금과 하나님을 뒤setter 놓은 치욕의 길을 걸었다”라고 혹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선교지의 변화는 이러한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이 강력한 자국중심주의로 바뀌고 있다. 20 세기 들어 자국의 생존은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미국 대통령이 말한 ‘민족자결주의’가 국가마다 정치체계의 자결권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의 것이 있어야 한다는 통치적 책임감을 갖기 시작하면서 국가의 독립을 최우선시 하는 나라들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민지 제도가 그 힘을 잃게 되었고 각 국가는 독립국가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치의 변화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국’이라는 정체성은 누구의 간섭도 받아서는 안되며 의전해서도 안되고, 스스로의 책임성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선교 사역에 걸림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하고 그 상황에 맞는 전략이 나와야 할 것이다.



종족우월주의란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그리로 적응능력이 다른 그룹의 사람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자신은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다른 인종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게 하며, 그 결과로서 폭력이나 인종차별 또는 자신의 그룹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인간의 심성은 늘 강하면 잡아먹고, 약하면 잡혀 먹힌다는 양육 강식의 야생 짐승들의 습성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조금 강하면 종족우월주의와 같이 것들이 생겨 다른 종족을 멸시하고, 불이익을 주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국가 간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식민지로 삼기도 하며 약한 국가들은 자국우선주의란 명분을 가지고 자력갱신을 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 역사에서 읽을 수 있고 현 국제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면서 경제적 종속중의에서 문화적, 사회적 종속주의가 살아지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선교는 지배세력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제국적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보여 주시지 않았다. 섬기는 지도력 그것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지도력의 아이콘이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시기는 마지막 잡혀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셔야 할 마지막 주간에 이루어졌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지도력의 마지막 보류는 '섬김'을 가르쳐야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와 영광을 누리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러한 인기와 영광으로 예수님을 계속 섬길 수가 있고,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지도력은 아니다. 오히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태 20:28)라고 말씀하신다. 때문에 주님을 저들을 지도자로 만들었으니 떠나시려는 순간에 마지막 교육은 '섬기는 지도력'이었다.